

<국문요약>

1995년부터 운영되었던 국제협력의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젊은 의료인들이 군 복무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한국국제협력단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사업 중 하나이다. 하지만 국제협력의사제도는 2013년 5월 제 19기 파견을 끝으로 2016년 상반기에 폐지예정이다. 현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지만,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. 이와 같은 객관적인 연구 자료의 부재는 향후 보완제도 개발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제협력의사제도가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건의료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국제협력의사 출신 의료인들의 효율적인 역할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.

연구 방법으로는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뉘는데, 문헌조사를 통해 국제협력의사제도의 배경 및 국제협력의사 선발 과정 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실행하였다.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의사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를 제작하였다.

설문조사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국제협력의사(전·현직)
- ② KOICA 관계자
- ③ 현지 보건의료 인력
- ④ KOICA 일반봉사단원 및 협력요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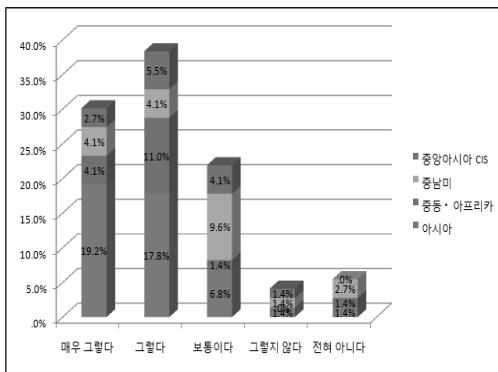
연구의 편향성(bias)을 예방하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대상별로 각기 다른 설문지를 제작하여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.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파견지역별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.

현지 조사 대상 지역으로 그 동안 협력의사들이 파견되었던 국가 중 대표적인 6개국(몽골, 캄보디아, 라오스, 에티오피아, 탄자니아, 페루)을 선정하였다. 이 국가들의 KOICA 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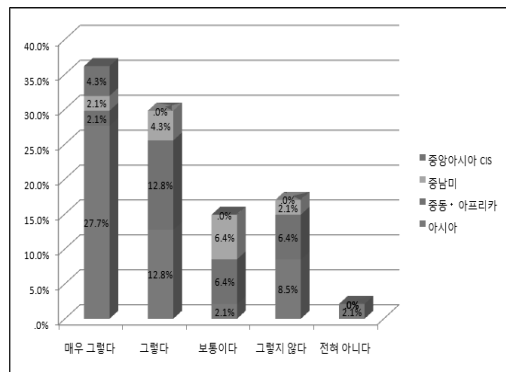
지 사무소와 국제협력의사들이 파견되었던 KOICA 협력병원 방문하여 각 기관 관계자들
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협력의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에 대한
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 등을 알 수 있었다.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·현직 협력의사, 국내 한
국국제협력단 본부와 해외 사무소 관계자, 현지 보건의로 인력, 그리고 KOICA 일반봉사
단원 및 협력요원들은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, 기존
제도가 폐지될 시, 지금까지 국제협력의사가 파견되었다 해외 KOICA 협력병원의 안정적
인 운영 및 현지 보건의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유사 사업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해서도
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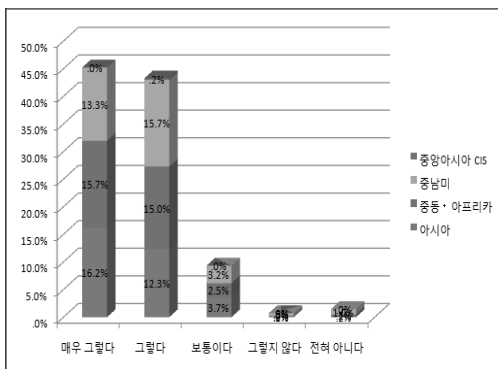
설문 대상별 국제협력의사제도에 대한 필요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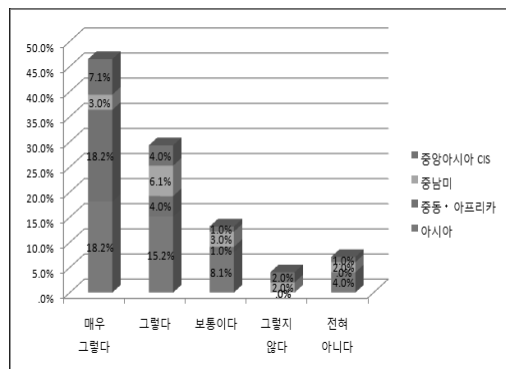
전·현직 국제협력의사



KOICA 관계자



현지 보건의로 인력



KOICA 일반봉사단원 및 협력요원

출처 : 본문에서 발췌

본 연구의 연구진은 국제협력의사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,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군복무 대체 형태의 국제협력의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을 주장한다. 그 밖에도 ① 국내 의학학회와의 협력, ② 한국국제협력단의 PMC 사업 활용, 그리고 ③ 보건의료 ODA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발을 대안 방안으로 제시한다.

국제협력의사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 방안

대안 방안 1 : 기존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유지 및 보완	
내 용	- 현지 보건의료 인력 등 관계자들의 기존 제도 유지에 대한 필요성 - 보건의료 전문 중장기 자문단 제한적인 인력 모집 및 운영 - 군복무 대체 형태 유지 시 지속적인 군 의료 인력자원 수급 가능
특 징	- 지원자 모집 시기 및 사전 교육 강화('예비 협력의사' 선발과정 등) - 국내 주요 의학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- 현지 근무환경 개선(파견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수요조사 강화 등) - 일반 봉사단원들과 차별된 관리방안 마련 필요
장 점	다양한 의료인 해외 파견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이 요구됨
단 점	기존 제도 보완 및 사전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
대안 방안 2 : 국내 의학 협회와의 협력	
내 용	매년 해외에 필요한 의사의 수요를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의학협회를 통해 전달 및 공지
특 징	선발 모집을 파견일보다 일찍 공지함으로써 선발될 의사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- 3월~5월 : 지원자 모집 - 6월~파견 전 : 사전 교육 및 선발 시험 실시 - 외부 학회 및 기관들과의 협조로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하도록 함.
장 점	- 전문의 이상 의료인의 사업 참여로 양질의 의료인 공급 가능 - 사전 교육 강화로 인한 현지 적응도 증대
단 점	기존 국제협력의사제도에 비해 급여 등의 대우 조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예산 증대가 필요

대안 방안 3 : KOICA 보건의료 PMC 사업 활용	
내 용	- 국내 대학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용역 사업 및 사후관리로 펠로우(전임의)를 선발 및 파견 - 파견 인력에 대한 예산을 사업 기획단계에서 확정하여 파견 기간 동안 인건비 및 현지 활동비 등을 제공 -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파견 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함
특 징	- 국내 타 보건의료 기관에서 유사 제도 시행 중
장 점	- 전문의 이상 전임의(교수자원)의 사업 참여로 양질의 의료인 파견 가능 -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로 국제협력의사 출신 의료인 활용 가능
단 점	- 다양한 의료인 해외 파견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됨 - 전직 국제협력의사들의 경우, 귀국 후 국내에서 받을 급여보다 낮은 근무 조건으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. - PMC 상황에 따라 인력 파견 일정이 조정 및 인원 교체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.
대안 방안 4 : 새로운 해외 의사 파견제도 개발	
내 용	향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, 전공의 대상으로 단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 또는 국내 수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
특 징	KOICA 직무 교육 수강을 해외 파견 지원 자격 조건으로 함.
장 점	국제협력 및 보건의료 ODA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켜 현지 업무 및 의료적 전문성과의 연결성 구축
단 점	단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 및 국내 직무 교육 등을 위한 예산 필요

출처 : 본문에서 발췌